

연중 제 15 주일

제1독서 : 이사야 55, 10-11

제2독서 : 로마서 8, 18-23

복 음 : 마태오 13, 1-23

숲 정 이

이 주일의 회답송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다.



양반타령은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의 탄식일 뿐이다.



박대덕 신부/ 송천 1동 성당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한창이었던 초세기에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을 옹호했던 교회의 학자중에 유스티노라는 분은 그의 저서 [제2호교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가 ‘말씀의 씨앗’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조들이나 예언자들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철학자들도 말씀을 받아들여 결실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에서 비그리스도교인도 보편적 구원 가능성이 있다는 가히 충격적인 부분 때문에 거의 가려지다시피 한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할 각 개인의 책임성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말끔이 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구원에 대한 안도감에 젖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만적 신원의식의 이면에는 꼭 경계해야 할 점이 있으니,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특수관계를 가짐으로써 만남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목적 실현의 새로운 전기 내지 출발일 뿐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수한 관계성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말끔이 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구원에 대한 안도감에 젖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만적 신원의식의 이면에는 꼭 경계해야 할 점이 있으니,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특수관계를 가짐으로써 만남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할 목적 실현의 새로운 전기 내지 출발일 뿐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수한 관계성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로부터 끊임 없이 비판을 받고 급기야 예수님으로부터도 심한 질책을 받은 것도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의식만 강했지 그 우월적인 지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더불어 우리의 책임있는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약속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뿌려진 씨앗은 똑같은 배태능력을 가지지만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사람)의 수용태세에 따라 그 결실은 얼마든지 달라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자존심만 지닌채 양반타령이나 하며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지만, 오히려 한알의 결실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농부처럼 최선을 다 할 때에는 엄청난 구원약속의 성취가 가능한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최고의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노력을 다하여 흑사라도 (교회밖의)열심한 일꾼들이 추수할 때 정작 한숨이나 내쉬며 구경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수혜자로서 최선을 다하자.



여 명

지금은 생명을 택할 때

이 덕 자(안젤라)

지난 5월에 제1기 창조·생명대학 강좌를 들었다. 7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이 강의는 '2000년 대희년 준비와 창조·생명가치의 확산, 도·농 생활공동체운동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설 되었다. 나는 도·농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유기농산물 직거래 모임에서 9년째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나도 유기농산물에 대해 그저 오래 살고 싶어하는 돈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는 것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유기농 생산자에게서 김장배추 1,000포기를 판로가 없어서 갈아엎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막연하게 뛰어들었는데,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의 피해와 수입농산물의 오염도를 공부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300여가지가 넘는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가 강력한 발암물질이며, 수입농산물에는 수확 후에도 20여 가지의 약품이 처리된다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할 식품이 오히려 독이 되어 인간생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제초제는 다이옥신이 주성분으로 농약 보다 독성이 훨씬 더 강해서 암과 기형아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다이옥신은 몸속에서 절대로 분해되지 않고 오로지 엄마 젖을 통해서만 몸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다. 화학비료도 마찬가지였다. 질소비료로 키워진 농작물이 체내에 들어가 단백질과 결합하면 태반까지도 뚫고 들어갈만큼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소아암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농사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물질들이 비에 씻겨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고,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을 오염시키고 먹이사

슬로 연결이 되어 피해가 확산이 된다. 식물들에 뿌려진 약성분은 그것을 먹고 자란 동물들 속에 축적되어 우리가 먹는 각종 고기와 생선 등에 포함이 된다.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마실 물도 구할 수 없고, 디딜 땅마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사람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유기농업 생산지수를 늘리려면 소비자가 열심히 먹어주어 그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이다.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다. 유기농 직거래 운동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며, 우리 땅과 물을 살리는 환경운동이며, 유통질서를 바로 잡자는 경제 운동이다.

이제 교구에서도 이 생명살리기 운동에 적극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무척 반갑다. 본당별로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셔서 신자들을 격려한다면 이 운동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창조·생명대학 수료식때 우리농본부장 신부님께서 인용하신 성서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다.

"너희 후손들이 잘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숲정이 산책



가톨릭 교외 교리서 해설(6)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571-637)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죽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짧게 정의한다면,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이 끊기어 생명이 끝난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숨이 멎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본들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죽음은 대화의 완전한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생명은 저 홀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움직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숨쉬는 동작처럼, 인간은 '말씀'을 들이마시고 또 내보내는 동작, 곧 대화를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더 오래 숨을 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주고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이런 사실을 신경의 제4절은 암시하고 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본시오 빌라도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매주일마다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묻히심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인물이다.

"고난을 받으시고", 공생활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말씀만을 행동으로 옮기셨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인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였다(요한 1.11 참조).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 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권위있게 해석하시는 등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사람들은 점점 거세게 "예수가 하느님을 모독하고 거짓 예언을 한다"(교리서 574항)고 비난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여정에서만 이 아니라 공생활 초기부터 이미 수난을 당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인간,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배척과 거

부는 무엇을 초래하였는가? 십자가 죽음이다. 이 죽음은 당시에 잔인한 형벌이었다. 나무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사 53.8: 교리서 627항 참조)로 죽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셨던 그분은 당시 종교·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으시고, 군중에 의해서도 따돌림을 당하셨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나섰던 제자들도 그분이 체포되자마자 도망쳤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홀로 남아 계셨다.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끊긴 모습이다. 당신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독 자체의 죽음이었다. 고독한 이 죽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폭로한다. 하느님과 대화할 수 없었던 인간의 단절된 모습, 곧 인간의 죽음이 그리스도께 미침으로써(교리서 598항 참조),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셨던 말씀 자체의 죽음이 빚어진 것이다.

"묻히셨으며", 예수께서 묻히셨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연극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교리서 627항)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죽음의 상태"(교리서 624항)에 온전히 들어가셨다는 것, 곧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인간 죽음의 상태를 예수께서도 온전히 맛보신다. 이는 예수께서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하느님의 부재로 당하는 고통까지도 겪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말씀' 없이,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다"(히브 4.12). 하느님께서는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다(교리서 312항 참조).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이렇다.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며, 살아있다고 해도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게시기에

주님께 늘 도와달라고 조르기만 하지요.

연극인 출신으로 전북일보의 문화부장, 광고국장을 역임하고 전북예술계의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문치상(비오, 용머리성당)형제님, 그는 교회안에서도 평신도협의회 회장으로 교구설정 60주년 기념극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를 기획 진행하여 행사를 더욱 빛냈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비오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예향전주의 맥을 이어오는 도립국악원 원장실을 찾았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명색이 연극인 출신인데도 성당에서 독서를 하려면 아직도 떨립니다. 신앙인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괜히 입으로만 떠드는 것 같아서요.

지난 1987년 교구설립 50주년 기념행사때 김수환 추기경님께 세례를 받기전까지는 거의 무신론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이미 신자였지만 저를 입교시키지는 못했었지요. 그런데 집사람친구 부부의 귀찮을 정도로 끈질긴 권고로 금암성당 예비신자 교리반에 나가 오현택 신부님께 교리를 배웠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쯤 지나 본당의 사목회 부회장을 맡게 되었지요. 그 후 꾸르실료 교육을 통해 평신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맡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숲정이 편집위원일도 했고, 레지오, 울뜨레야등, 땅을 때는 9개의 교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한번도 짜증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다니던 신문사를 96년 1월에 퇴직했는데 얼마되지 않아 평협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직장도 그만두어 사회적으로도 매일 일이 없는데에 당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소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평협회장이 되어서는 교회안에서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을 찾자는 생각으로 평협조직의 개편에 힘썼습니다. 교구설정 60주년 기념행사때에는 평신도들이 가진 재능을 모아 연극을 공연했지요. 저의 말을 들으신 신부님들은 모두들 망설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모두들 임도가 안나섰던가 봐요. 주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애써서 무대에 올린 공연은 성공이었습니다. 그 뒤로 주교님의 생각이 많이 바뀌서



서, 교구의 교육이나 모임에서 평신도의 참여가 활발해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협회장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도립국악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세속일로 바쁘다보니 성당에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뇌경색으로 눕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정신차리라고 혼을 내셨나봐요.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저의 시야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무엇을 하던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음을 느낍니다. 함께 일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항상 과분한 은총을 내려 주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께 매번 무엇을 달라고 청하기만했지 그분께 드린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9월에는 지난번 60주년 기념행사때에 공연했던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를 좀 더 보완하여 재공연할 계획입니다. 전주뿐 아니라 서울무대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앞으로 계획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천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공직자들의 대희년을 전주교구에서 치르게 되는데, 그때도 국악과 관현악 반주로 국악미사를 하고 싶고, 치명자산 성지를 중심으로 루갈다제를 여는 등, 각종 예술문화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앞장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금강치과의원
 고품질은 역전으로 이전개원
 12년간의 경험과 신장비로 도입
 원장(치의학 박사)진국범
 부진성구(안드레아)
 익산역→원대방향 30m인켈 2층
 역전 주차장 이용바람
 ☎(0653) 853-6633

전 일 관 광
 신혼여행전문
 금강산관광
 관광버스대절
 조선(안토니오)
 ☎(0652) 288-6666

원진도어, 현관문 생산처
 (교구현관문, 대문, 중문, 방화문)
 노승환(스테피노)
 배일순(아가다)
 남원시 용정동 166(남원시 입구)
 ☎(0671) 625-8338, 993-8338
 H·P 011-659-6944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태오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는 일곱 가지 청원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청원이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청원은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전형적인 기도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양식을 마련하여 주는 일은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본 생필품인 빵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한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청원에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생활의 구체적 현장인 가정 안에 기울이시는 관심과 그 양식에 마음을 쓰고 계시는 배려가 담겨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청하고 있는 양식은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양식, 곧 가족들과 함께 나눌 빵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하느님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마땅히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로 우리는 "오늘"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있다. "오늘"이 두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의미 심장하다. 여기에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녀들의 삶이 나날이 발전하도록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신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삶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지상에 보화를 쌓아 두려 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계산에 사로잡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고자 재물을 비축하지도 않는다. 아버지께서 결코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제때에 보살펴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다. 나아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청하고 있다. 곧 모든 이의 양식이며 모든 이에게 돌아갈 양식, 서로 서로를 위한 양식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한 자녀들인 것이다.

요십이 (1353) 김병오



젊은이 여름캠프
작은 형제회(프린치스쿠)
 일시 : 7월 30일(금) ~
 8월 1일(주일) - 미혼청년
 8월 2일(월) ~ 4일(수)
 - 중고생
 장소 :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 (02) 3217-4141
 서울본원

주식매매 및 신규투자상담
 금융상품 · 뮤추얼펀드 · 채권
 실험 · 성당 자산 운용상담
 차장 박 정 일(라우렌시오)
 ☎ (0652) 288-0011(대)
 288-1252(직)
 H · P016-233-4668
 (대우증권 전주지점 - 시청역)

기쁘고 은총의 대축제에 2000년 대희년까지 167일 남았습니다.

제 양호은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경로수녀회 전주분원(성요셉동산 양로원)의 원장이셨던 에티엔 마리 수녀님(Etienne Marie du Sacré-Cœur)께서 지난 7월 2일 오전 5시 30분경 심장마비를 일으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30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나신 수녀님께서는 50여년의 수도생활 중에 37년 이상을 아시아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1993년에 한국에 오신 수녀님은 1996년 7월부터 전주교구의 성요셉동산 양로원에서 원장직을 맡아 봉사하셨습니다. 생애동안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머물렀던 수녀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 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치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0652) 278-1212-3

가람종합사무기
 복사기, FAX, 컴퓨터 프린터를
 무료점검해드립니다
 복사용지, 토너, 프린터 소모품업체
 유 이 근(마르첼리노)
 익산시 신동 국민은행 옆
 ☎ (0653) 842-6985/6658
 011-680-1393

전주대항외과
(구. 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변비)
 전문의 소 우 성(스테파노)
 효자동 서도프라자 입구
 ☎ (0652) 227-0377

풍년제과
 동산지점
 대표 양 기 술(요한)
 하 성 자(가타리나)
 ☎ (0652) 2121-218
 H · P011-676-1740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91-6번지

숲속에서

못자리에서 배우는 사랑 이야기



공 현 식(베드로)/ 가톨릭 대학교 2학년

우리 신학생들이 성소의 꿈을 키워가는 못자리, 방학이 되어 신학교에서 본당으로 돌아오는 나는 저번 학기를 돌이켜 본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2학년 공동체에서 '영구'라고 별명 지워진 형제이다. 그는 항상 해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런 웃음을 자아내게 했고 굶은 일도 손수 남몰래 하는 형제였다. 나는 그가 내색은 잘 하지 않지만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이 많은 형제인지 알고 있다. 때론 그의 얼굴에서 '힘듦'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다른 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장난끼 어린 미소를 띄우곤 했다. 처음엔 나는 그가 단지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나보다 어린 그가 존경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번은 내가 감기몸살로 한 나절을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자는 것처럼 누워 있는 내 곁에 그가 와서 손을 잡더니 혼자말로 "형이 아프면 안돼, 내가 아파야 하는데..." 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가 교실로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기고 간 그 말만은 내 귀에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나는

서너시간쯤 더 누워 그가 남긴 말이 되새기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킨 것이다.

'영구'라는 그 형제 외에도 구멍나고 헤진 내 양말을 보고 새양말을 건네준 형제의 맑은 눈망울, 속옷이 없어서 찢찢맬 때 자기 속옷을 빌려주던 형제의 고마운 마음씨, 남몰래 청소를 하던 형제들의 수고, 이런 여러 형제들의 모습들이 나를 이번 학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다.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이지만, 이렇게 서로 배워가며 도와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소는 커가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론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는 신학교 생활, 하지만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다시 힘을 얻는 것임을, 또 혼자 가는 길이 아닌 형제들과 함께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방학한지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형제들의 얼굴이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네. 방학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학기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구!"

하루 피정
성빈센트스콜라 자비의 수녀회
 일시 : 7월 18일(주일) 오전 9시부터
 (매월 셋째주일)
 장소 : 수원지동본원
 (성빈센트병원 옆)
 문의 : (0331)241-2151 ~ 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3

성소모임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일시 : 7월 18일 오후 2시
 (격월 셋째주일)
 장소 : 동국APT, 106동 104호
 (숲정이 성지 옆)
 문의 : ☎ (02) 922-9004
 B · P015-127-3177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413-79 우)136-062

성소모임
성빈센시오 아 비오로 사랑의 팔회
 일시 : 7월 18일 오후 2시
 (매월 셋째주일)
 장소 : 군포본원
 문의 : ☎ (0343)452-9659
 성소담당자 호출번호 012-1120-9547

제2회 젊은이를 위한
명상 캠프
 대상 : 30세 이하의 미혼 남녀
 때 : 8월 13일~16일(3박 4일)
 4만원
 문의 : ☎ (02) 984-1611
 성바오로 말수도회



권해드립니다

- ◆ 사회교정사목 군산 월레미사
 - 때 : 7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나운동 성당
- ◆ 가르멜 영성피정
 - 때 : 7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동 성당
 - 회비 : 3,000원(점심없음)
- ◆ 청소년 사목위원회
 - 때 : 7월 1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교구청

-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 광주·전주교구 봉사자모임
 - 때 : 7월 16일(금) 오후~17일(토) 김병오/ 315면/ 8,000원
 - 장소 : 소양면 해월리 기도의 집
 - 참석대상 : 각 본당, 공소 임원 및 봉사자
- ◆ 제 23차 선택 주말
 - 때 : 7월 23일(금)~25일(주일)
 - 장소 : 천호성지
 - 문의 : 청소년교육국(노정석) 285-3637

요십이

전주교구주보 윤정이에 만화와 만평을 그리고 있는 저자가 26년간 그린 만화중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만화를 엮어 단행본을 냈다. 사회와 정치가 암울했던 시기의 민중의 소리를 만날 수 있다.



- ◆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월레미사
 - 때 : 7월 17일(토) 오후 3시
 - 장소 : 소양면 해월리 기도의 집
- ◆ 예비신학생 여름연수
 - 때 : 7월 17일(토)~19일(월)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7월 18일(주일) 오전 7시
 - 출발 : 가톨릭센터 출발

- ◆ 지리산 관광객을 위한 미사
 - 때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인월공소(인월중학교 앞)
- ◆ 무주 구천동 리조트 미사
 - 때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 장소 : 왕성가든 모델 (0657)322-9067
- ◆ 빈첸시오회 교구 이사회
 - 때 : 7월 17일(토) 오후 3시
 - 장소 : 서학동 성당

개달음의 길

토머스 키팅 / 172쪽 / 5,800원

향심기도를 시작한 시토회 수사신부의 성서묵상집, 말씀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현존이 실제 생활에 스며들도록 안내한다.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성마로오팔수도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52)252-3398	살레시오 여자수도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연치동 성당 수녀원	(0681)533-2578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일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244-0094	예수성심 전교수녀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3시	삼천동 성당 수녀원	(0652)226-3487
살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일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858-4724	전교 가르멜 수녀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274-9262
사랑의 씨앗 수녀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성당 수녀원	(0652)281-0441	콘벤투알프란치스코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성당 수녀원	(0652)284-2276	인보성체수도회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284-3231
동정성모회(전주이리)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성당 수녀원	(0652)232-5004	살레시오 수도회(남자)	매일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인보성체수녀원	(062)512-0332

솔외피정의 집 주말피정
 주제 : 살아있는 신앙
 강사 : 배승록 신부
 시간 : 7월 17일(토) 오후 2시 ~ 18일(주일) 오후 1시
 회비 : 25,000원 (1박 3식)
 문의 및 신청 : (0457) 362-5021~2 FAX(0457)362-5524

성 소 모 임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일시 : 8월 5일(목) 오후 5시 ~ 8월 8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경남 산청 성심원 교육관
 문의 : ☎ (02) 865-8174
 대상 : 세계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윌 서비스심부름 흥길동
 전화번호를 모르면 114로 흥길동을 찾으세요
 노 정 님(아네스)
 ☎ (0652) 232-0999
 H·P019-663-90292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쿤 : 160,000원
 · 욕,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주) 에이플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총괄법인 대리점)
 본부장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 영업소 및 사용인 모집
 천주교 서신 신협 3층 ☎ (0652) 251-3930~2

지역특화사업 환경농특산물(무농약) 인진재배 생산 추출액
마이산인진속Project
 박 준 호(임브로시오) 안 순 정(라 사 라)
 주문처 전화 ☎ (0655) 432-4000, 2680
 전주사업소 (0652) 254-2404
 기술협력 : 전북 농업기술원 진안속근 약초시험장 원광대학교 의약자연 연구센터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 민 고)
 ☎ (0652) 241-2000

(유) 1급 쌍용정비공업사
 현대, 기아, 대우, 전자중 (검사지정업체/견인차량 주야대기) (교구 특별우대)
 박 중 철(바 오 로) 박 인 자(가브리엘라)
 팔복동 자동차 정비공단 내 ☎ 212-3800 1/011-681-8823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무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희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희영
 FA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이 김수우

- ◎ 주일미사에 빠지지 말고 정성껏 참여합니다.
- ◎ 오늘은 청소년 여름 행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1. 금주 모임 : 성모승천, 무염시태, 성 마리아, 성모성심 Cu. - 교중미사 후
- 2. 청소년 여름행사를 위하여 후원금 : 성모성심 부녀회 180만원 새 영세자 326,000원, 전 울리안나 5만원, 김연자, 조동환 각 3만원 유금회 2만원, 유이분, 손덕순, 김진기, 김로마나 각 1만원 소계 2,296,000원 총계 2,796,000원
- 3. 초중고 여름신학교 일정 : 초등부 교리 - 19일(월)~24일(토) 캠프 - 25일(주일)~26일(월), 중.고등부 교리 - 21일(수)~22일(목) 캠프 - 23일(금)~25일(주일)
- 4. 교적을 정리합니다 : 타고구 거주자,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를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5. 금주 전례 : 해설 - 정영식, 독서 - 정귀진, 성미정, 봉헌 - 덕진 29만
- 6. 차주 전례 : 해설 - 김선덕, 독서 - 안성기, 정남애, 봉헌 - 덕진 30만
- 7. 금주 청소년 : 17일(토) 후 2시, 작은 형제회, 지혜로운 어머니 Pr.
- 8. 차주 청소년 : 24일(토) 후 2시, 대건회, 공경하을 어머니 Pr.
- 지난주 봉헌금 : 2,009,070원 □ 교무금 : 2,403,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김진화
 F A X 212-32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장희호

- ◎ 초중고 여름 신학교
- ① 초등부 신학교 교리 - 20일(화)~21일(수), 전 6시~11시 신학교 캠프 - 22일(목)~23일(금), 순창 천담분교
- ② 중.고등부 신학교 3일기도 - 20일(화)~22일(목) 후 3시~6시 신학교 캠프 - 23일(금)~25일(주일), 순창천담분교 * 부모님들의 관심, 사랑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 1. 오늘 모임 : 천상어머니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 2. 주간 모임 : ① 사목협의회 - 13일(화) 후 8시 ② 울뜨레야 - 16일(금) 후 9시 ③ 동성회 - 17일(토) 후 6시
- 3. 차주 모임 : ① 중.고 자모회, 빈첸시오 - 공식미사 후 ② 내동공소미사 - 후 9시
- 4. 좀도리쌀 모으는 날 : 다음 주일
- 5. 노인대학 성지순례 : 15일(목)
- 6. 감사 헌금 : 박정숙(안절라) 100만원
- 7. 청소년 : 금주 - 애덕의 모후 Pr., 차주 - 은총의 어머니 Pr.
- 8. 금주 전례 : 해설 - 김계옥, 독서 - 유준원, 박인화 봉헌 - 최승호, 김영원
- 9. 차주 전례 : 해설 - 김영수, 독서 - 전동운, 정순이 봉헌 - 김용문, 임윤순
- 지난주 봉헌금 : 1,032,960원 □ 교무금 : 1,814,000원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무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F A X 291-2018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김영만

- 1. 금주 모임 : ① 요세회 - 전 9시 30분 ② 성모회 - 후 8시
- 2. 차주 모임 :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회 - 후 2시 ③ 사목회 - 후 8시
- 3. 초등부 여름 신학교 : 27일(화)~30일(금)
- 4. 중.고등부 99살레시오 여름 신학교 : 23일(금)~25일(주일) *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 5. 제2, 3주는 성소 후원회 가입 및 회비납부의 날입니다
- 6. 감사 헌금 : 남서진 변영자(마리아) 3만 * 감사합니다
- 7. 차주 청소년 : 황금동, 만경동
- 8. 금주 전례 : 해설특전 - 김옥화, 공식 - 이원규 독서특전 - 최홍성, 이옥순, 공식 - 최경식, 한홍순 제물봉헌 - 최동열 부부
- 9. 차주 전례 : 해설특전 - 김세연, 공식 - 윤천수 독서특전 - 최경호, 박춘자, 공식 - 박정선, 이영애 제물봉헌 - 서정만 부부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무실 254-2777 주임신부 박대덕 사목회장이 진호

- 1. 금주 모임 : ① 요한회, 안나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월례회 - 15일(목) 10시
- 2. 차주 모임 : ① 제대회 - 20일(화) 10시 ② 울뜨레야 - 20일(화) 저녁미사 후
- 3. 사목회 월례회 겸 단련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수유 성당 야영장 공식미사 후 - 출발예정 *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예비신자 교리가 9일(금) 금요일부터 오전반(10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자는 예비신자의 전례와 기도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5. 각 구역에서는 집입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비신자 인도와 쉬는 신자 권면에 최선을 다합니다
- 6. 축! 임명 : 4구역장 - 김숙자(마리아) 2만장 - 이애심(크리스티나) *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한병현
 수녀원 291-0833 사목회장 이재갑

- ◎ 생활말씀 :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 1. 성전 신축 기금 : 익명 70만, 월계 70만원, 총계 - 475,012,294원
- 2. 초등부 여름 신학교 : 23일(금)~27일(화) 캠프 - 26일~27일, 장수 방화동
- 3. 중.고등부 여름 신학교 : 23일(금)~25일(주일), 장수 방화동 * 본당 학생들은 모두 참여합니다
- 4. 초중고생들의 신학교를 위한 잔조금을 받습니다 : 사무실 접수
- 5. 감사헌금 : 성현주(루시아) 5만, 김재식(마리노) 오요순(요안나) 부부 20만, 이(루비아) 20만
- 6. 오늘 모임 : 울뜨레야, 요세회 7. 애령회 : 15일(목) 후 8시
- 8. 꾸리아 야외행사 : 17일(토), 여주
- 9. 금주 전례 : 해설 - 김윤오, 저녁 - 이미란 독서 - 황주열, 강신철, 이향순, 제물봉헌 - 강창희 부부
- 8. 차주 전례 : 해설 - 강신준, 저녁 - 이석 독서 - 허호, 신이목, 오영숙, 제물봉헌 - 이용선 부부
- 9. 성당 청소년 : 17일(토), 죄인의 의탁, 자비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 662,900원 □ 교무금 : 919,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한기홍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유진영
 FAX 274-1004 사목회장 장준식

- 1. 오늘 모임 : ① 안나회, 대건회 - 공식미사 후 ② 바오로회 - 9시미사 후, 야외모임
- 2. 초중고 여름 신학교 : ① 초등부 - 19일, 성당에서 교리 - 20일, 유치부~2학년(물놀이), 참가비 - 5천원 21일~22일, 3~6학년 성지순례(참가비 - 1만원) ② 중.고등부 - 23일~25일, 살레시오 캠프장(참가비 - 2만 5천원) * 학부모님의 관심 바랍니다
- 3. 초중고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 보좌신부님이나 수녀님께 문의 바랍니다
- 4. 전출임시 반드시 교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아직도 신임을 못하신 분 속히 신임 바랍니다
- 6. 금주 본당 청소년 : 25구역 - 17일 전 10시
- 7. 금주 전례 : 해설 - 박화신, 독서, 봉헌 - 24구역
- 8. 차주 전례 : 해설 - 최용성, 독서, 봉헌 - 25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630,590원 □ 교무금 : 2,868,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정성진
 FAX 252-7366 사목회장 김인선

- ◎ 초중고 여름 신학교를 위한 잔조금 : 사무실에서 접수 받음 *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협력합니다
- 1. 중.고생 여름 신학교 : 23일(금)~25일(주일), 광주 청소년 수련원(살레시오 수녀회) 신청 마감일 18일(주일), 회비 - 2만원 분당보조 - 2만 4천원
- 2. 초등부 여름 신학교 : 26일(월)~29일(목) 물놀이 - 29일(목) 수유 야영장
- 3. 금주 모임 : 요세회,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 4. 차주 모임 : 구세주의 모후, 능하신 동정녀 Cu. - 공식미사 후
- 5. 유아 세례 : 17일(토) 후 7시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6. 부녀회, 자모회, 제대회 : 13일(화) 전 10시
- 7. 성령 묵상의 감사헌금 : 문기철(15만원)
- 8.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 익명(30만원), 익명(20만), 홍명현(20만) 계 39,416,500원 * 모든 신자가 다 참여합니다
- 9. 다음주 본당 청소년 : 6구역 33만 10. 미사안내 : 하늘의 문 Pr.
- 11. 금주 전례 : 해설 - 홍은희(루시아), 독서 - 서동원, 박보선
- 12. 차주 전례 : 해설 - 김태규(유스티노), 독서 - 서성수, 임정남
- 지난주 봉헌금 : 1,685,520원 □ 교무금 : 2,784,000원

신윤선(아가다), 서춘석(글라라)자매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7. 전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① 주공아파트 - 김은숙(비비아나) 성희권(베드로), 손명숙(보나), 허남길(바오로) ② 신일아파트 - 윤문숙(크리스티나) ③ 현대 2차아파트 - 김광순(울리안나)
 8. 비품비 : 김중선(요셉) 10만원 * 감사합니다
 9. 금주 전례 : 김의식(베네딕도) 10 차주 전례 : 이창복(안토니오)
 11. 금주 청소년 : 8구역(현대1차A) 토요일 10시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가진 사람은 그 가진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13, 12)
 * 실천사항 : 마태오 복음 13장 읽고 묵상하기

□ 지난주 봉헌금 : 1,334,950원 □ 교무금 : 684,000원

쉬고 있는 교우에게 숲정이를 보냅니다.